

2021 CBTS 졸업식 설교

Dr. Diana Butler Bass

여러분의 신학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펜데믹으로 인해 여러분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학교는 여전히 여러분이 공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의실에서, 때로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정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앞에 놓인 사역 현장을 준비하기 위해 신학과 교회사, 윤리학과 목회학을 2 년, 3 년 혹은 4 년간 공부하는 여정을 걸어가신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도 바로 그 여정과 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단지 그 여정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그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몇 가지 이유로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지나오신 신학교에서의 여정과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하고 있는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신학교에서 경험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제겐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것과 올바른 신학 혹은 정통신학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른 학생이나 교수에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나 각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학, 교회사에 대한 다양한 주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한 가지 공통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가능한한 공정하고, 참되며, 힘있고, 진실하게 참여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영역과 신학교에서의 경험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정확무오나 영감, 혹은 놀라운 방식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할 중 하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경험,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기록은 어떤 신성한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의 도전적 논쟁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은 논쟁에 대한 기록이며 오래된 전통에 대한 기록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삶과 사명, 그리고 예수의 사역과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신학이란 경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나 예정, 혹은 박해받던 시대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엄청난 책을 썼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웃의 배밭에서 배를 훔치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그 죄책감을 더 깊숙하게 우리와 나눕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배를 훔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낳은 그가 사랑했던 소실이었던 무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는 그 여인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이

이를 아파했을 것이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 혹은 자신의 죄의 본질이나 성적욕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신학이라고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작품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죄책, 부끄러움, 사랑하고, 사랑을 잃는,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험들 말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신학은 모두 그의 경험과 그의 참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끔찍한 폭력을 목격하고 십자군에서 돌아온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안전한 마을로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망가진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역사가로서 제가 볼 때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며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폭력을 거절하며 오히려 평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가장 위대한 영적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그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라는 젊고 부유한 사람의 경험이었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가장 폭력적인 현장에서 평화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재헌신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중세 시대 교회의 갱신과 본질적인 사명과 비전의 회복과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의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참회나 대사(사면, indulgence)가 그를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느끼며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믿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은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경험으로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에 대해 기록하며, 인류의 본성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진짜 루터가 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루터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분노하면서 “진짜 루터”가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더 살펴볼 때에, 어거스틴, 성 프라치스코,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존 웨슬레의 작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 세기의 인물인 오스카 로메로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신학들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학은 경험이며, 성경은 경험의 기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것은 가장 오랜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들의 이야기이며, 수세기에 걸쳐 교회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어떤 면에서 가장 분명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여주고 구체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놀랍도록 다른 장소와 시대에서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모든 족속, 언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이는 요한 계시록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입니다. 결국 교회의 역사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공부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성경을 주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문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구요. 성경이 씌여진 언어를 다루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이 기록된 배경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주된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이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엄청난 논쟁을 해온 1 세대 그리스도인과 초기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들은 사유하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논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례와 다른 많은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주장들과 그 주장들이 기록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논쟁해왔는데, 그것이 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 완성된 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세상 속 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전해진 그 모든 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지혜가 우리의 전통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신학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대 교회가 있고, 중세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주고, 수세기에 걸친 이해를 뒤집고 교회가 무언가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간 복음을 위한 모든 운동과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 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많은 논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다양한 여러 곳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 학우들과 논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해방 신학 (liberation theology)이 21 세기의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경험과 복음에 대한 충실함을 요약하는 가장 의미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인 우리의 손으로 할 일이 있다고 이해하는 과정 신학 (process theology)을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루터나 칼빈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통찰력의 영역을 넘어설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통찰력을 오늘날 세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이며, 그것이 세상이 의미라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논쟁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신학교에서 굉장히 잘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바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논쟁이 내면에서만 일어났을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학우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경험과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듣기는 했지만, 다른 학우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관점을 통해서, 오래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내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책에 기록된 오랜 과거의 사람들의 경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성찰의 기초이며 우리의 삶 기독교 이야기 속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신학을 배웠습니다. 교회사 속에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도 공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씌여진 당시에든 사람들은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매우 격렬한 논쟁이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 속에서 그들은 기록을 남기고 예술과 음악과 일기와 기도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그리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신학적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물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것, 그리고 지혜를 남기고자 노력한 세계 곳곳의 여성과 남성들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교회사로 이끌어 줍니다. 저는 교회사를 14 년간 가르쳤습니다. 교사, 강연자, 작가로서 제 경력의

초창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8 세의 아이들에게 13 주 과정의 전체 교회사를 듣게 한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칠 무렵 배운 것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이 20 세기 오순절 부흥운동이든, 종교개혁이든, 4 세기 동방 정교회를 낳은 중세 신비주의든지 학생들은 항상 다른 코멘트를 했고,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다양함을 좋아했습니다. 도로시 데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노리치의 줄리안, 남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잔나 웨슬리의 분노 등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학기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과거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자, 교회사를 공부했으니, 이제 가서 실행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마치 교회사라는 것이 이미 끝이 난 책인 것처럼 말이죠. 경험의 책은 그래왔듯이 정경 안에서 종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들과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경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무언가를 더할 수는 없는 경험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더 많은 텍스트들이 앞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의 정경인 성경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할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험의 다른 두 영역인 신학과 교회사는 개방형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노리치의 줄리안이나 칼빈, 도로시 데이 같이 유명한 신학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들은 정말 씨름할 가치가 있다라고 대부분이 동의할만한 20-25 개정도의 생각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직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하다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신학책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신학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새롭게 경험했고 그렇게 하여 교회 역사를 일구어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학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던지 혹은 단지 일몰이나 일출을 보며 감탄을 하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고, 아마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의 페이지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신학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히 잊혀진 사람들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단지 어떤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작가이자 역사의 창조자였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곳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졸업식을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공부한 성경, 신학, 교회사 등의 다른 경험의 이야기들을 배운 이곳 신학교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신학교에 가지고 갔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교실에서 그리고 책을 통해 배운 이야기,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씨름하며 그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신학교 문을 들어섰을 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경험들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들을 더 깊게 배우고 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당신의 인생은 이끌림을 받은 곳을 향해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회중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회정의를 위한 사역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의 심각한 불의에 맞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민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돌보는 이들을 위로하십시오. 평화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곳을 떠나 예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아빌라의 테레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손이나 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갇힌자들을 자유케 하고 세상에 평화를 말하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경험을 세상으로 넓혀갑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넓혀가고 이를 성찰하면서 우리 삶의 신학을 써내려 갑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역사의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백년 후 교회는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곳에서 전쟁, 불의, 권위주의, 제국주의, 환경위기, 팬데믹, 경제적 불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야기이며, 우리의 신학적 목소리를 성경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며, 크고 복잡하고 고통이 가득하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세상 속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6 피트 거리두기를 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의 일부이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알고 세상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이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고 놀라운 방식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5 년, 10 년, 또는 20 년, 40 년 후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한 연민,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동일한 치유와 동일한 세상의 구원이시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각기 다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민, 사랑, 은혜, 자비, 치유, 구원에 있어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당신이 살고 있는 곳, 당신을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 세상의 고통, 세상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연민, 자비와 정의, 구원과 치유의 다양한 측면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1 세기 초 기독교의 이야기를 함께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고, 함께 이 책을 써내려갈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든, 우리의 도전이 어떠하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섬길 때에 활짝 열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